



전연호씨의 '수월관음도'.

불교와 가톨릭의 미학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가 마련된다. 대구 가톨릭미술가회(회장 천광호)는 25일까지 대구시립중앙도서관 1층 전시장에서 동국불교미술인회와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 소속 작가들 초청한 '제 29회 회원전'을 연다.

불교작가들은 귀산스님을 비롯해 전연호, 락중해, 박현수, 김성희, 김의식 등 15명. 대부분 대구지역에서 활동중인 이들은 불화와 불상을 선보인다. 특히 티베트 불화인 '망카(Thanka)'를 9년동안 익히고 돌아온

귀산스님은 정교하고 세밀한 화풍의 '바르도의 여래'를, 동국미술인회 전연호 회장은 사리를 걸친 관세음보살을 입체감있게 표현한 '수월관음도'를 벽에 건다.

대구가톨릭미술가회 회원들도 김도윤 신부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서양화가인 천광호씨는 로마 바티칸시티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 상을 부조로 조각한 '피에타'를 출품했다. 또 도예가 박성백씨는 예수의 승천 모습이 그려진 도자기 성수 그릇을, 김양수씨는 꽃과 나무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성당

# 불교 미술로 만나다 가톨릭

## 가톨릭 미술가회, 불교미술인 초청 대구서 '회원전'



김도윤 신부의 '나는 난다'.

### 귀산스님 등 15명... '바르도의 여래' 등 출품 김도윤 신부 등 30명 '피에타상' '성당' 선보

을 수채화로 표현한 '성당'을 내놓았다. 이렇게 모인 작품 50여점이 이번엔 관객들을 만난다.

이 행사를 기획한 천광호 회장은 "비록 작은 규모지만 미술인들 스스로 예술을 통해 종교의 벽을 넘어선 만남이라는 점에서 여느 전시회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원불교와 개신교 작가들

여하는 이번 교류전에서 불교계에서는 류민자·송수련·송영방·전영화·정탁영(이상 한국화), 오경환·오원배·이민익·전성우(이상 서양화), 김영연·류종민·조승환(이상 조소씨) 등 12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중 단순하고 굵은 선의 민화적 화풍으로 미륵반가상을 재미있게 표현한 이민익씨의 '미륵반가사유상'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전성우씨의 회화 '청화 만다라'와 김영원씨의 조각 '절가히 석고'도 전시된다. 가톨릭에서도 이종상(한국화), 나혜균·문학진·송경·윤병모·이동표·정창섭·조영동(이상 서양화), 최의순·최종태(이상 조소씨) 등 10명이 참가한다. 이들 작품중 원로작가 문학진씨(서울대 명예교수)의 '기도하는 소녀'는 색채를 뛰어넘어 추상적 기법으로 표현했지만 마치 빛으로 그린 것처럼 정교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동표씨의 '50년만의 만남, 너무 긴 세월이었다'와 최종태씨의 '앉아 있는 여인' 등이 출품됐다. 법장 총무원장 스님은 "이번 전시회가 평화와 화해를 갈망하는 이웃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메시지가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02)360-9193.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한춤·승무 전수원 세우고 싶어"

## '춤 살림방' 연 이애주 서울대교수



"이 공간은 앞으로 몇 년 뒤 꿈꾸고 있는 '한춤 승무전수원'을 짓기 위한 전초기지입니다. 하루종일 우리 춤을 마음껏 추고 우리 전통예술에 대해서도 마음편히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겁니다."

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예능보유자 이애주 서울대 교수(56·사진)가 종로구 견지동에 '춤 살림방'을 차렸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승무'와 '한춤'을 보급하기 위해서다.

이 교수가 강의하려는 '한춤'은 '한민족', '한겨레' 등에서 따온 것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문을 연 3일에는 그동안 불심양면으로 후원해 준 이수성 전 국무

총리를 비롯해 최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여익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장 등 50여명과 함께 '춤잔치'를 벌였다.

"가장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맞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몸짓 언어로 반대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40여명의 젊은 공간이지만 전통춤에 기초해 무뎠던 깊이와 심오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한춤 대중화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한다.

이 교수는 또 우리 조상들이 춤과 노래로 심신을 단련했던 수행법 중의 하나인 '영가무도(儛歌舞蹈)'에도 관심이 높다.

"영가무도란 작은 소리에서 점점 큰 소리로, 작은 몸짓에서 큰 몸짓으로, 일정한 호흡을 곁들여 노래하고 춤추며 몸을 움직이는 일종의 무도지요. 전통춤을 연구하면서 체득한 이 방법도 일반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함께 전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춤으로 중심을 잡고 정통성을 바로세워 세계에 알리자는 것이 그의 간절한 발원이다. (01)8688-0419.

김주일 기자



◇'용'의 그림자를 이용한 화면앞에서 나비춤을 추고 있는 전통포교 인형극 '만석중놀이'의 한 장면.

## 그림자 이용 전통 포교 인형극 만석중 놀이 재현

지난 8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주지 지성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불교 유일의 그림자를 이용한 전통포교 인형극 '만석중놀이'를 재현했다.

오후 7시 30분 어둠이 짙게 깔린 등화사 설법전 앞 무대에서는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여들자 '만석중놀이'가 막을 올렸다.

"깨지거라 깨지거라 마음 뒤아서 깨치거라. 고치거라 고치거라 마음 뒤아서 고치거라" 일음스님(종교문화재단 제50호)의 결속한 입담으로 화청소리(和聲, 한자로 된 불경을 알기쉽게 한글로 풀어낸 노래소리)가 잔잔히 들리면서 영사막 위로 해·달·소나무·구름·거북·학·사슴 등 십장생들의 그림자가 하나 들쭉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때마다 막 오른쪽에 위치한 만석중 나무인형은

중생들의 불로장생에 대한 집착이 덧없음을 뜻하듯 손과 발로 자신의 가슴과 머리를 쳐 '탁탁' 소리를 낸다.

고려시대 우리 전통의 민속놀이로 광복으로 쳐진 막 뒤에 비친 인형의 그림자를 관망하는 일종의 '무언무용극'인 만석중놀이는 글을 몰라 불경을 접하기 어려웠던 당시 민중들에게 부처님 법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만석중놀이보존회 한대수회장은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만석중놀이'가 국가지정문화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박원규기자

## 해인사서 달마와 연꽃展 생활불교 미술품 20여점

해인사 구광루 1층 갤러리에서 21일까지 열리는 양창제 화백의 '달마와 연꽃展'에 가면 각 가정에 걸어두고 법향을 느낄 수 있는 '달마도'와 '연꽃' 그림 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달마도는 담묵(淡墨)으로 처리된 달마의 표정에서 고도로 응결된 내면적 정신세계를 표출해 놓았다. 또 부처님을 비롯해 관세음보살 등 불보살과 조화된 연꽃



양창제 화백의 '연꽃화'.

**방송 프로그램**

<p><b>BBS 불교방송</b></p> <p>05:00 아침예불 06:00 뉴스 09:05 차 한잔의 선율 10:05 BBS 신형상담실 16:45 불비니동산 18:00 저녁예불 23:05 불교문화산책</p> <p><b>아이리이트</b></p> <p>■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25일 09:05~10:00) - 맑은 산사의 기운을 클래식 소품에 실어 전하는 '차 한잔의 선율' 일요일 시간에는 시와 에세이 그리고 좋은 문장을 진행 스님의 청명한 목소리와 클래식의 잔잔한 선율과 더불어 감상해보는 '침묵이 묻어있는 단상들'이 진행된다.</p>	<p><b>불교텔레비전</b> &lt;ch 32&gt;</p> <p>21일 11:50 천상천하 가요독존 22일 07:30 광광 불비니동산 23일 09:30 설수진의 러빙유 24일 11:30 퀴즈 아담번식 25일 08:40 명상으로 하는 태교와 육아 26일 08:30 혜봉 스님의 차와 선 이야기 27일 13:10 충성, 성불하십시오</p> <p>■불교텔레비전: △충성! 성불하십시오(24일 17:25~18:20) - 군포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전국의 부대를 순례하며 부대와 법당을 소개하는 '충성! 성불하십시오'에서는 해병2사단 청룡부대 장병들을 방문한다. 일관스님의 법문과 함께 해병대 청룡부대원들의 끼있는 자기자랑도 펼쳐진다.</p>
--	--

한국는협회권설립 CS경쟁4상 최우수상

LG화재 매직카로 활짝 웃다

평소에 서비스 받자

영사점의급, 발급 지원에서 30가지 차량전반, 긴급견인, 비상금유동 77가지 복지서비스까지 이제 LG화재 매직카로 해결하세요. 평소의 서비스 받는 자동차보험, LG화재 매직카 하나면 당신과 당신의 차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고객센터 1544-0114 • 고객센터: 권역 02-3149-7000, 강남 02-2688-0500, 경기 03-300-3000, 부산 051-500-2114, 대구 052-430-3133, 대전 042-259-3000, 광주 062-222-1114

www.lginsur.com